



안녕하십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삶은 그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이 풍성하게 생육하여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물이 없는 사막이나 날씨가 추운 극지방과 같이 생명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모두 갖추고 비교적 풍부한 물과 순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 생명이 돌아오고 여름의 푸르름과 가을의 풍성함, 다가오는 봄을 준비하는 겨울의 움츠림은 우리의 역동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축복받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러한 환경의 고마움을 대부분 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과 호소가 오염되고 도시의 공기가 탁해집니다. 산과 숲이 있던 자리에 도로가 뚫리고 도시가 생겨나고 공장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는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훼손이 계속된다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늘이 내려주신 축복 받은 땅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1963년 12월 24일에 설립된 이래 이제 4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잘 살게는 되었지만 환경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관련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우리의 값진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것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물려받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니 좀 더 나은 상태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잘 살고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단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귀중한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의 자연환경은 길이 보전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미력하나마 국민 모두의 이러한 뜻을 모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회장
류재근